

# AVEC 연례보고서 2012 : 무역협정 2011 ~ 2012



번역 | 이 명 지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본고는 2012년 11월 23일 Poultry Site에 기고된 2011년~2012년 무역협정에 관한 것으로 AVEC(Association of Poultry Processors and Poultry Trade in the EU Countries) 2012년 연례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2012년 봄 가금산업의 무역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였던 두 가지 중대한 일이 있었다.

첫 번째는 EU의 태국산 가금 신선육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이 된 이후 EU가입국들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절정에 달했던 2004년 수입 금지 조치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는데 동의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2003년 중반 동남아시아로부터 발병되어 유럽 일부국가를 포함하여 60개국 이상에 영향을 끼쳤던 고전염성 병원균을 근절하려는 태국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두 번째 중대한 일은 EU와 브라질, 태국간의 각각 GATT 28조항에 따른 협정을 유럽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공표한 것이다. 이것은 GATT협정에 수록된 계획에 따라 EU에 제공되는 가금 가공육에 관한 양허의 수정과 관련이 있다.

## WTO : DOHA Moving Foward

새로운 WTO 협정에 대한 협상들은 단단히 고착된 상태이다. 농업은 더 이상 다른 분야에 대한 원인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NAMA(non-agriculture market access, 비농업 시장 접근), 환경재(財)와 서비스 같이 다른 위치에서 서로 연관될 수 없다.

미국의 선거가 다가오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로의 진전은 긍정적이지 않다. 이것은 또한 양자간 협상 활동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2012년 4월 23일 CN code 1602상에 가금에 할당된 수입관세의 조화에 관한 GATT 28조항 교섭이 완결되었다.

## 1. WTO Dispute Settlements(분쟁 처리)

### 가. 인도의 미국 가금 수입 금지에 대한 분쟁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실패한 후 WTO에 접촉해왔다. 미국은 인도의 AI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미국 가금 수입금지가 과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무역과 연계하여 인도와의 협의를 구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분쟁 처리과정상 첫 단계이다. 인도는 수입금지 조치가 AI의 진입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가 관련 학계 및 국제적 지침 그리고 인도 자국의 가축산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모순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EU 정부나 생산자들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 나.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정책

EU는 2012년 6월 WTO에서 아르헨티나의 수입제한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EU는 아르헨티나와의 협상에서 2012년 이후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사전 승인 시스템, 비자동수입 허가 제도, 수입과 무역 균형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포함한 거래 제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요구했다. EU가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국이 아니기 때문에 EU의 농업 측면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남미공동시장

(Mercosur)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AVEC는 EU의 PRT 처리된 미국 가금 수입 제한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2011년 추가로 등록된 사항이 없었다.

### 다. 멕시코와 캐나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4월 의무적인 원산지 표기에 관하여 미국과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WTO에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은 2012년 7월 29일 항소의 대부분을 패한 직후 소매상에게 고기의 원산지 라벨 표시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 라. 미국과 중국

WTO 분쟁 해결 기구는 중국이 미국 수입 육계에 대하여 반덤핑(anti-dumping) 관세와 상계관세에 대한 WTO규칙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했다. 북경에서는 미국 가금 생산물 생산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제품을 밀치고 팔도록 허용하는 불공평한 보조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세 요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의 가금 생산물의 수입을 보류하면서 국제무역법을 위반했다는 중국 당국관계자들의 불만에 의해 촉진되었을지도 모른다. WTO 전문가 위원회가 2009년 7월 구성되어 중국으로부터 가

금생산물의 수입 과정에 이용되는 기금을 금지하는 부분이 포함된 2009년 미국 일괄세출 예산법과 관련하여 중국의 불만을 조사했다.

#### 마. 브라질 남아프리카 가금 관세

브라질은 남아프리카에 의한 일시적 반덤핑 관세 부과 수입된 브라질산 가금 생산물에 일시적인 반덤핑관세 부과우려를 제기했다.

남아프리카 관세동맹상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수입은 브라질로부터 오는 모든 냉동 닭들은 63% 추가 관세 대상이며, 추가 관세 범위는 정육에 대하여 6~47%가 부과된다. 분쟁 해결을 위한 첫 번째 협상은 2012년 7월 계속되고 있다.

#### 바. 안데스 지역과 중앙 아메리카

유럽연합의 교섭자들은 콜롬비아 및 페루와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서명했는데 정식조인과 국가간 비준의 초석이 되는 이 협정은 2012년 말 발효된다. 지역적 통합 원칙에 근거하여 안데스 공동체의 다른 두 회원국인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와의 협정과 서명의 여지가 남아있다.

#### 사. 남미시장공동연합

2012년 7월 발표에 따르면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은 베네수엘라를 2012년 7월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될 것이며 현재 회원국인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남미공동시장 연합과의 교역에서 예상 가능한 영향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고 유럽연합의 농식품 생산자들이 직면할 중대한 수입 손실은 46억 유로와 775천만 유로의 두 가지 경우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경우 육류분야의 총 손실은 58억 유로 이상이며 이 중 가금 분야는 8억 유로의 손실이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2012년 7월 브라질의 주제 하에 진행된 남미공동시장연합 의장단 회담에서 외환시장 진입 제의를 했지만 연기되었다. SPS와 동물 복지 문제는 논의 되어야만 한다.

브라질에 있어 가금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A.V.E.C는 할당제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특히 가금분야의 일부 아메리카 기업들은 EU와 남미공동시장연합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 2. ASEAN 및 ASEM 및 양자 회담

### 가. 중국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EU-중국의 미래 발전에 대하여 신중했으며 중국의 복건성과 허난성의 지역에서 열처리된 가금생산물을 수

출하고자 했다. FVO는 2011년 10월 중국의 이 지역에 방문하여 동물위생 제어시스템을 수립하고 관리자가 엄격하게 생산이력관리와 적절한 열처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조류 인플루엔자, 뉴캐슬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등성(수입국이 요구하는 보호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부족하므로 중국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 나. 대한민국

2011년 1월 EU와 한국은 FTA의 잠정적 적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FTA의 이행 단계는 EU에서의 한국기업과 한국에서의 EU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성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며, EU는 한국(주류, 돼지고기, 글루텐, 전분)과 농업이익 및 무역 수지에 대한 공세에 있다. 2011년 12월 FTA 첫 번째 관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다. 싱가포르

EU와 싱가포르는 협상진행 중에 있다.

#### 라. 인도

FTA에 대한 EU와 인도 사이의 협상은 세

계에서 가장 큰 무역 협정이 될 것이다. 인도의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EU의 낙농 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농촌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EU와 인도 사이의 회담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인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제한과 같은 OIE 규정을 허용하지 않아 식품동식물규제협정(SPS)에 있어서 가금의 경우에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나 인도는 협정에 있어서 동물 복지 기준을 간주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유럽 연합(EU)은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마. 태국

EU는 태국과 긴 비공식 접촉을 했으며, 구체적인 논의를 곧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태국과의 협정지역 확장을 위하여 협상 중에 있으며, 위의 설명과 같이 EU는 신선한 가금류 고기의 수출을 2012년 7월 1일부터 재개했다.

#### 바. 인도네시아

2011년부터 FTA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 사. 베트남

유럽 연합(EU)과 베트남은 예비 논의를 마친 후 FTA에 대한 공식 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의 첫 시작은 2012년 여름 방학 이후로 계획되었다. EU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품은 주로 의류 및 섬유 분야이지만 커피와 해산물 등의 식품도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EU 수출품은 대부분은 자동차 및 전기 설비 등의 첨단 제품이다.

#### 아. 일본

일본과 EU는 FTA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일본의 수출 가금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태국과 중국처럼 EU의 가금 산업은 브라질과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FTA를 통하여 EU의 경제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3. 그 밖의 양자간 협상

#### 가. 캐나다

양 당사자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포괄적이고 대규모의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 의원은 계약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지만, 유전자 변형 작물, 우유, 원산지표기에 대한 EU 규정을 준수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 나. 우크라이나

EU와 우크라이나 협상은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여 협회의 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최종협상에서 5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가금육 8,000~10,000톤, 냉동육 10,000톤(순 중량)을 개방했으며, 유럽연합(EU)은 16,000~20,000톤의 가금육과 냉동육 20,000톤(순 중량)을 개방했다.

#### 다. 몰도바, 조지아 아르메니아

EU는 2011년 12월 몰도바, 조지아와 자유 무역협정을 시작했다. 두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과 보안을 향상시키고 GDP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두 나라는 이미 EU시장에서 수입 관세가 매우 낮은 편이다. €

EU는 Caucasian countries(2010년 278만 달러)과의 무역에서 순 수출국이다. EU는 국가에 일부 가금육을 수출하지만 상반 수출은 하지 않는다. ₩